

성인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따른 미니스타일 선호에 관한 연구

전국대학교 대학원
이 수 지
전국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이 인 자

目 次	
I. 서 論	IV. 결과 및 논의
1. 연구목적	V. 결론 및 제언
2. 가설	참고문헌
II. 이론적 배경	ABSTRACT
III. 연구방법 및 절차	

I. 緒 論

1. 연구목적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現代人들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 스트레스는 인간생활에서 제거할 수 없는 것으로 각 상황에서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여러 각도에서 작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일으키며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에 사회적 인 부조화로써, 범죄나 정신질환, 불만, 그리고 행동의 변화로 재현되어 왔다(이영미, 1988).

최근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생활 영역의 확대로 여성들은 더 큰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이들 중 중년에 접어든 여성들의 경우 빠른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가정과 사회내의 역할변화 및 가정내외에서 경험한 생활 사건변화에 의하여 또 여성교육의 향상과 더불어 자아실현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느끼게

한다고 했다(장병옥, 1985).

강혜원(1987)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할수록 긴장과 갈등을 더욱 느끼어 스트레스가 쌓이며 우울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에서 헤어나오기 위한 방법으로 衣服이 이용되고 있다고 했으며 기타 여러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해결 방법으로 衣服이 사용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근래 크게 유행하고 있는 미니스타일이 스트레스 및 신체 만족도 등의 心理的 要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규명하는데 그 目的을 두었다.

2. 가 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영가설을 설정하였다.

1) 미니스타일 선호와 신체만족도 上·下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2) 미니스타일 선호와 스트레스 上·下 집단간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3)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신체만족도 上·下 집단 간의 미니스타일 선호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4)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스트레스 上·下 집단 간의 미니스타일 선호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

인간이 환경자극에 적절하게 반응하여 생존을 유지하는 과정을 적응이라하며 이때 자극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반응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으며 적응상의 곤란을 당하게 된다. 이런 적응 곤란에서 생기는 정신적, 신체적 긴장을 “스트레스”라 한다(정양은, 1983).

스트레스는 긴장감을 생산하는 강하면서 불유쾌한 정서적인 힘 또는 압력으로서 적응과정을 위협하는 어떤 조건이나 상태를 말하며 이것은 인간의 적응능력이 과도하게 요구될 때 일어난다고 한다.

Baughner & Martin(1989)은 스트레스를 단순히 개인의 평형상태를 변형시키고 신체적 긴장의 원인이 되는 신체적 또는 감정적 요소라고 하였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정신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하는 환경적 요소에 따르는 불균형 상태와 일정하지 않은 신체적인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트레스 요인에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전자는 신체적 환경인 목욕, 배고픔, 동통, 피로 등과 인지적 환경인 두려움, 걱정, 기대, 자아, 느낌 등이 포함되며 후자는 공간대화, 감각적 자극, 대인관계 등을 포함한다. 이들 모두는 때로는 긍정적 스트레스를 대토는 부정적 스트레스를 작용하여 생리적인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종합적인 스트레스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다(김명자, 1985).

Nelson & Nelosn(1981)은 스트레스는 즉시 확인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로서 측정할 수 있으며 거의 어느 사건은 스트레스 반응을 창출하는 반면 모든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은 동일하고 혈압상승, 맥박이 빨라지고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진다고 하였다.

2. 신체만족도

Secord와 Jourard(1953)는 “신체만족도는 자기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하여 갖는 만족의 정도이다”고 정의하였다.

Horn(1968)은 신체 만족도란 신체의 전체나 각 부분에 대한 개인의 만족, 불만족의 느낌을 말하는 것으로 인종과 성에서 차이가 나며 의복과 관련된 행동과 연관이 있으며 자기 신체에 대한 태도를 질문함으로써 측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McClean(1978)은 60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신체의 다섯부위(키, 몸무게, 가슴, 허리, 엉덩이)에 대한 신체적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들의 체형이 표준체형으로부터 이탈되었을 때 이러한 신체부위에 대하여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 20~89세 여성의 신체만족도와 의복 만족도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이들 두 변인 간에는 40~49세 사이의 여성에서만 유의있는 관계가 있었다. 가장 젊은 집단인 20~39세의 집단에서는 신체만족도가 낮았는데 이는 이상적인 체형을 목표로 두고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불만감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Ford와 Drake(1982)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및 신체 만족도와 의복행동을 조사한 결과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자아 존중감과 신체만족도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또한 의복에 대한 세련됨과 신체만족도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

3. 미니스타일

미니는 길이가 무릎보다 위로 올라간 매우 짧은 스커트를 말하며 길이에 따라 무릎위 8인치 내지 10인치의 마이크로 미니와 무릎위 5인치 내지 6인치의 미니로 불리어진다(Frings, 1982).

영국의 패션디자이너, 메리퀸트가 1965년 10월에 미국에서 미니스타일을 발표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미니스커트 시대의 막을 열게 되었다(Mulvagh, 1988).

미니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965년 이후이나 메리퀸트는 1950년대 말에 이미 미니스타일을 디자인 하였으므로 미니스타일의 출현을 이 시기로 보고 있다.

1960년대에 미니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요인은 첫째, 영국 문화의 국제적인 명성에 힘입어 미니스타일도 국제적으로 쉽게 수용되었으며 전 서구세계는 영국의 영패션의 경향을 뒤따르게 되었고, 둘째, 1960년대에는 대중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젊은 세대 중심의 문화가 얼마나 성행하는가를 알려주었으며, 그들의 의복 또한 마스크의 영향으로 유행을 일으키는 결과가 되었고, 셋째, 미니스타일은 종래의 여성 복장에 대한 기성관념을 타파하고 도덕관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점이 젊은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어필되면서 자유와 젊음의 상징으로 부각되었으며, 넷째, 미니스타일이 주는 감각은 여러 가지 획기적인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한 스피드시대의 감각과 우주선 발사 및 발사계획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우주시대의 감각을 반영하여 민중들의 기호에 잘 맞았고, 다섯째, 이 당시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성행하던 팝아트, 음악아트 및 팝아트를 현대화한 몽드리안의 작품등이 미니스타일에 도입되어 젊은 층의 감각에 잘 맞았기 때문에 미니스타일이 유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니스타일의 특징은 보다 활동적이고 단순한 스타일로 단순함과 실용성을 기본으로 하였으므로 젊은 층의 생활감각에 잘 맞았으며 짧아

진 스커트 길이는 자연적으로 팔을 노출시키는 조형구조의 슬리브레스 드레스를 창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여성미의 요소로서 각선미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변화되는 세대와 생활에 따른 인체미학이 발견되었다(이선희, 1987).

이은영(1991)은 1980년대 말부터 미니스커트를 착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다시 늘어나고 미니스커트의 길이가 점점 더 짧아지는 현상은 노출에 대한 욕구보다는 유행에 대한 욕구로 설명하였다.

즉, 60년대의 미니스커트는 에이 라인이었던데 비하여 지금 유행하고 있는 미니스커트는 스커트의 길이가 점점 더 짧아지고 폭이 좁아졌으며 엘라스틱 옷감을 사용하여 엉덩이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스타일로 유행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큰 특징으로 미니스커트와 더불어 반바지의 유행을 들 수 있는데 반바지의 유행은 미니스커트가 갖는 낮은 활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과 미니의 빠른 확산 속도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근래에 크게 유행하는 스포츠 인구의 확산으로 스포츠웨어로 주로 입는 짧은 바지가 일상복으로 침투하는데 별무리가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상때문이라고 생각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30~49세) 270명을 대상으로 1992년 5월 25일부터 6월 8일 사이에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했으며 통계 처리된 수는 244명이다.

2. 측정도구

1) Stress-Level 측정

Nolmes와 Masuda(1973)의 SRRS(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를 사용했다. 이는 총 43문항으로서 지난 1년간 발생한 생활사건에 모두

체크하게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stress를 많이 받음을 의미한다.

2) 신체만족도 측정

Secord와 Jourard(1953)의 Body Cathexis Scale을 사용하였다. 43문항으로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mini-style 선호도 검사

의복 style을 그림으로 제시하여 길이의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디자인은 근래 많이 입혀지는 스타일을 스케치로 제시하였다.

Blouse+Skirt 4종류, Jacket+Slacks 2종류, Jumper+Slacks 2종류, One-piece dress 7종류 등 총 15종류의 스타일화를 선정하고 이것을 다시 길이의 변화를 주어 15×4=60의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micro-mini 4점, mini-3점, chanel line-2점, midi-1점으로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짧은 스타일을 선호함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spss pc⁺ program을 이용. 평균, 표준편차, 빈도, t-test 등으로 유의차를 검증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세에서 34세가 35.2%, 35세에서 39세가 20.9%, 40세에서 44세가 23.8%, 45세에서 49세가 20.1%로 30세에서 34세가 가장 많았다. 결혼여부별로는 미혼이 20.9%, 기혼이 79.1%로 기혼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교육 수준별로는 고졸이하 집단이 3.3%, 고졸 49.6%, 2년제 대학졸 9.4%, 4년제 대학졸이 34.4%, 대학원 이상이 9.4%로 고졸집단이 가장 많았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분포(N=244)

내 용 구 분		N(명)	%
연령	30~34세	86	35.2
	35~39세	51	20.9
	40~44세	58	23.8
	45~49세	49	20.1
결혼여부	미혼	51	20.9
	기혼	193	79.1
교육수준	고졸이하	8	3.3
	고졸	121	49.6
	2년제 대학중퇴, 졸업	23	9.4
	4년제 대학중퇴, 졸업	84	34.4
	대학원 이상	8	3.3
수입	30~59만원	34	13.9
	60~99만원	65	26.6
	100~200만원	99	40.6
	200~299만원	29	11.9
	300만원 이상	17	7.0
계		244	100

가정의 월수입 별로는 30~59 만원이 13.9%, 60~99만원이 26.6%, 100~200만원이 40.6%, 200~299만원이 11.9%, 300만원이상이 7%로 100~200 만원이 가장 많았다.

2. 미니스타일 선호도와 신체 만족도 上·下 집단과의 관계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미니스타일 선호도와 신체만족도 上·下 집단의 관계를 분석한 t-test 결과는 <표 2>와 같다.

신체 만족도 상·하 집단에 대한 미니스타일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신체만족도 上, 下 집단간에 유의 차이를 나타냈는데 신체적으로 만족하는 집단이 만족하지 않는 집단보다 미니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편차값도 上집단이 7.61, 下집단이 8.47로 신체만족도 上집단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유행의복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신체만족도 上, 下 집단간의 미니스타일 선호도

신체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上집단	34.46	7.61
下집단	32.63	8.47
t값	1.50*	

* p<.05

이상으로 <가설 1>은 미니스타일 선호도와 신체만족도 上, 下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므로 기각되었다.

3. 미니스타일 선호도와 스트레스 上·下 집단간의 관계

<가설 2>을 검증하기 위해 미니스타일 선호도와 스트레스 上·下간의 차이를 t-test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 스트레스 上, 下 집단간의 미니스타일 선호도

스트레스	평균	표준편차
上집단	32.16	8.48
下집단	34.57	6.79
t값	2.05**	

** p<.01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스트레스 上·下 집단에 대한 t-test 검정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 下집단이 上집단보다 더 미니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대한 표준편차값도 下집단이 6.79, 上집단이 8.48로 上집단보다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上집단 보다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스트레스 下집단에서 미니스타일은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으로 <가설 2>은 미니스타일 선호도와 스트레스 上·下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므로 기각되었다.

4.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신체만족도 上·下 집단간의 미니스타일 선호도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신체만족 上, 下집단간의 미니스타일 선호도를 t-test로 분석한 결과는 <표 4-1>~<표 4-4>와 같다.

<표 4-1>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본 미니스타일 선호도와 신체만족도 上, 下집단의 비교

<표 4-1> 연령

신체 만족도 연령	上집단 미니선호도	下집단 미니선호도	t값
30~34세	38.92	38.26	0.78
35~39세	34.87	31.73	1.48*
40~44세	29.78	28.64	0.79
45~49세	27.57	28.63	0.77

* p<.05

〈표 4-2〉 결혼여부

신체 만족도 결혼여부	上집단 미니선호도	下집단 미니선호도	t값
미혼	38.41	38.2	0.37
기혼	33.44	30.76	2.81**

** p<.01

〈표 4-3〉 교육수준

신체 만족도 교육수준	上집단 미니선호도	下집단 미니선호도	t값
고졸이하	34.0	34.25	0.37
고졸	33.81	32.13	1.37
2년제대학 중퇴, 졸업	35.66	33.33	0.92
4년제대학 중퇴, 졸업	34.39	32.03	2.42**
대학원 이상	33.0	41.66	1.83*

* p<.05 ** p<.01

〈표 4-4〉 수 입

신체 만족도 수 입	上집단 미니선호도	下집단 미니선호도	t값
30~ 59만원	36.8	38.13	0.52
60~ 99만원	36.64	33.0	3.37***
100~199만원	33.33	31.07	1.90**
200~299만원	31.55	28.92	0.78
300만원 이상	27.6	33.25	1.09

* p<.01 *** p<.001

〈표 4-4〉에서와 같이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수입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 연령에 있어서는 〈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35~39세 여성층 신체 만족이 높을수록 미니스타일을 선호하였다.

(2) 결혼여부에 있어서는 기혼에서만 유의 차이가 나타나 신체만족도 上집단이 下집단 보다 미니를 더 선호하였다.

(3)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유의 차이를 보였는데 4년제 대학중퇴 이상 졸업한 수준에서 신체만족도 上집단이 특히 미니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신

체만족도 下집단에서 미니선호도가 높았다.

(4) 수입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유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60~199만원과 100~200만원인 경우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미니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신체만족도와 미니스타일 선호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가설 3〉는 부분적으로 기각되었다. 그러므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신체만족도 및 미니스타일 선호도간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학중퇴나 졸업을 한 주부층 즉 35~40세 정도, 연령층에서 월수입 60~199만원 정도, 중소득 층인 경우 신체 만족도가 높을수록 미니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대학원 이상인 경우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미니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추후에 다시 연구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신체만족도 上집단이 下집단보다 미니스타일 선호도가 높았고 이는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의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이영운과 강혜원의 연구(1981)와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는 의복만족도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는 Ford의 연구(1982)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5.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스트레스 上·下 집단간의 미니스타일 선호도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스트레스 上, 下집단간의 미니스타일 선호도를 t-test로 분석한 결과는 〈표 5-1〉~〈표 5-4〉와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수입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 연령과 스트레스 上, 下집단간의 미니스타일 선호도 〈표 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에서는 35~39세와 40~44세에서만 스트레스 上, 下집단에서 미니스타일 선호도의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 즉 35~44세 여성층 스트레스를 덜 받는 여성일수록 미니스타일을 선호하였다.

(2) 결혼여부에 있어서는 미혼, 기혼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 下집단이 上집단보다 미니스타일 선호가 높았다.

(3)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고졸수준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때 특히 미니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수입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인 경우 스트레스를 덜 받을 때 미니를 선호하는 현상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스트레스를 덜 받는 집단에서 미니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35~44세의 연령층에서 고졸수준의 학력을 가진 경우, 수입이 높은 계층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때 미니스커트를 선호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고소득층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경우 근래 유행하는 에어로빅이나 볼링, 수영, 골프 등의 운동에 많이 참가하기 때문에 미니스커트나 짧은 바지를 거의 평상복으로 착용하는 상태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이상으로 <가설 4>는 부분적으로 기각되었다.

<표 5-1>~<표 5-4>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본 미니스타일 선호도와 스트레스 上, 下집단의 비교

<표 5-1> 연 령

스트레스 연령	上집단 미니선호도	下집단 미니선호도	t값
30~34세	38.65	38.04	0.42
35~39세	29.3	36.11	5.74***
40~44세	28.35	32.47	2.07**
45~49세	28.35	29.5	1.22

* p<.01 *** p<.001

<표 5-2> 결혼여부

신체 만족도 결혼여부	上집단 미니선호도	下집단 미니선호도	t값
미 혼	36.31	39.0	3.20**
기 혼	31.24	33.62	2.89**

** p<.01 *** p<.001

<표 5-3> 교육수준

신체 만족도 교육수준	上집단 미니선호도	下집단 미니선호도	t값
고졸이하	28.33	30.67	1.82*
고졸	30.97	35.4	3.76***
2년제대학 중퇴, 졸업	35.0	35.18	0.1
4년제대학 중퇴, 졸업	34.0	34.02	0.02
대학원 이상	27.5	32.0	0.56

* p<.05 ** p<.01

<표 5-4> 수 입

신체 만족도 수 입	上집단 미니선호도	下집단 미니선호도	t값
30~ 59만원	34.66	41.0	1.51*
60~ 99만원	34.41	37.5	1.36
100~199만원	31.97	32.25	0.29
200~299만원	28.81	37.88	3.28***
300만원 이상	25.57	32.33	4.89***

* p<.05 ***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맺으면 다음과 같다.

1. 미니스타일 선호와 신체 만족도에 있어서는,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미니스타일을 더 선호하였다.

2. 미니스타일 선호도와 스트레스 관계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집단이 많이 받는 집단보다 미니스타일을 더 선호하였다.

3.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신체만족도 上·下집단에서의 미니스타일 선호간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 연령에 있어서는 35~39세에서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미니스타일을 선호하였다.

(2) 결혼여부에 있어서는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

단이 낮은 집단보다 미니스타일을 더 선호하였다.

(3)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4년제 대학졸업 또는 졸업정도에서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미니스타일을 선호하였다.

(4) 수입면에 있어서는 신체만족도와 미니스타일 선호의 관계는 60~199만원 정도의 중산층에서 대학수준의 학력을 가진 35~39세의 성인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만족할수록 미니스타일을 선호하였다.

4.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스트레스 상, 下집단에서 미니스타일 선호간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 연령에 있어서는 35~44세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집단이 많이 받는 집단보다 미니스타일 선호도가 더 높았다.

(2) 결혼에 있어서는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때 미니스타일을 선호하였다.

(3) 교육수준에 있어서 고졸수준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때 미니스타일을 선호하였다.

(4) 수입면에 있어서는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때 미니스타일을 선호하였다.

즉, 스트레스와 미니스타일 선호도와와의 관계는 고졸정도의 교육수준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선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찰해 보면, 미니스타일 선호 경향에 있어서 스트레스 下집단과 신체만족도 上집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상태 즉,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미니스타일과 같은 유행스타일을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신의 신체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길이가 짧은 미니스타일의 의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의 연구결과 미니스타일 선호가 신체적 만족도 및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영향을 미치며 인구통계학적인 요인과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

본 연구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여성 중 일부만을 임의 표집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된 스트레스는 최근 1년동안의 생활사건에서 느끼는 정도를 분석한 것으로 만성화된 쇠약성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상태에 대해서도 일반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구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의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변인을 찾아 이 연구와 관련된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결과가 학문연구의 기초자료로써 제공되며 의류산업에 관련된 사람들과 소비자들에게 정보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강혜원, "결혼적응도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11권, 1호 (1987), pp.71~77
- 김명자, "지시간호가 입원환자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19.
- 이영미, "스트레스와 의복디자인 선호도간의 상관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86, p.12.
- 이은영, 월간 "뫓", 1991. 8, pp.118~121.
- 정양은, "심리학통론", 법문사, 1983, p.190.
- Baugher, S.L & Martin, B.B, "The Decision Filled Years of Adolescence",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73, No. 3, 1981, p.40.
- Ford, I.M, & Drake, M.F. "Attitudes toward Clothing Body and self : A comparison of two group",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2) 1982, pp.189~196.
- Frings, Gini Stephens, Fashion from Concept to Consumer, Prentice-Hall, Inc., New Jersey, 1982, p.26.

- Horn, M.J., *The Second Skin :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Boston : Houghtoll Miffoin Co. 1975, p.135
- Jourd, S.M & Secord, P.F., "Body" Cathexis and the Ideal Female Figure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50, 1955, pp.243~246.
- Mclean, F.P., "The Process of Aging Related to Body Cathexis and to Clothing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Utah State Univ., 1978.
- Mulvagh, J. "Vogue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Viking Penguin Inc. 1988, p.241.
- Nelsonm, P.T. & Nelson, C.W. "Personal and family stress Management",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73, No.3, 1981, p.34.
- Secord, P.F. & S.M. Jourard, "The Apperaisal of Body Cathexis : Body Cathexis and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5), 1953, pp.343~347

ABSTRACT

A study of the Preference of Mini-Style according to Body Cathexis and the Stress Recognition Level for a Group of Adult Women

As a society is becoming more and more complicated, people living in modern times are experiencing more stresses for various reasons. Some past research results proved the role of clothing in reducing the stres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preference of the mini-style, which is recently most fashionable styles, is related to the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stress and body satisfaction.

Measure Instrument were Nolmes and Masuda(1973)'s SRRS(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Secord and Jourard(1953)' Body Cathexis Scale and mini-style preference scale by author

Surve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wo hundred seventy adult women living in Seoul area during may 25, 1992 through June 8, 1992. The age range of the subjects was from 30 to 49. The final number of subjects included in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244.

The result and conclusions are as follows :

1. Significant difference was existed in mini-style preference between high and low body satisfaction groups. Mini-style was preferred by high body satisfaction group than low body satisfaction group.

2. Significant difference was existed in mini-style preference between high and low stress groups. Mini-style was preferred by low stress group than high stress group.

3. Regard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unmarried, 2 year college graduates with low family income in their early 30's pref. mini-style.

4. There was a marginal interaction effect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ni-style preference and body satisfaction. The higher preference for mini-style was found for the higher body satisfaction group mostly with the age range of 35 to 39, married, 4 year college graduates as drop-outs, and mid less income group.

5. There was a marginal interaction effect of demographic variabl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ni style preference and stress level. The higher preference for mini-style was related to the low stress level group mostly with

age group of 35 to 44, high school graduates or lower, and highest income group regardless of their marital status.

In sum, mini-style seems to be preferred by

women who feel relatively less stress and are more satisfied with their bodies, thus psychologically stable.